

24 Thanks ! Fleur Pellerin - Musée d'Orsay Paris

사진은 예술이 아니다 ! 오르세 미술관에서 갑자기 벌어진 예술과 인종 차별 논쟁

S 날씨가 흐리고 컨디션도 안 좋았다. 그러나 미루면 혼자서는 못가 볼 것 같아 **오르세 미술관**으로 출발했다. 단체와 여러 번 갔었으나 그때는 사람들 행기는 게 일이라 원하는 만큼 작품을 가슴에 담을 수는 없었다. 식사를 건너뛰더라도 양껏 작품들을 누려보리라 작정을 하고 미술관으로 향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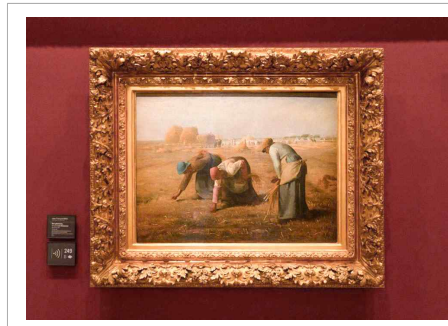
내가 사진작가는 아니지만 예술의 도시 파리에 다른 예술 분야를 무시하는 듯한 문구가 공공연하게 걸려 있는 것에 놀랐다. 기분도 좀 상해서 직원에게 이야기했다. “내가 핸드폰으로 작품을 찍는 건 하나의 기념이지 예술이 아니다” 직원은 뿌루뚱한 표정으로 “**아튼 촬영은 안돼 !**” 하고 가버렸다.

R 좀 봤으니 로댕 미술관으로 갈까 ? 좀 숙소에서 좀 설까 ? 잠시 고민 중이었다. 그때 누가 어깨를 툭툭 쳤다. 유럽에서 타인 몸에 손이 닿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. “**No Sleeping !**” 예의 그 직원이 다소 크게 말했다. 나도 화가 났다. “**I'm Just thinking Not Sleeping !**” 해보자는 말이었다.



사진을 찍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. 그러나 나는 일을 위해 필요 했으므로 찍어야만 했다. 관리 직원의 눈길이 안 닿는 때에 맞추어 얼른 몇 장을 찍었다. 그때 나타난 직원이 손가락을 좌우로 흔들며 “**노 포토그래프**” 라고 외쳤다. 알았다고 하고 잠시 앉아 쉬었다. 아직 못 찍은 작품들이 있어서 다시 촬영을 하는데 그 직원이 다소 짜증난 표정으로 따라 오라더니 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“**Potograph is not Art**” 라 적혀있었다.

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침부터 쏸은 의무감에서 다녔더니 피곤이 몰려왔다. 특히 발이 아팠다. 신발을 고쳐 신으려하는 순간에



A 그 직원이 다시 나타났다. “신발 벗으면 안돼 !” 이렇게 나오면 나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. “신발 벗는 거 아니야 **고쳐 신는 중이야**” 나의 말에 그는 인상을 쓰며 나를 지나쳐 다른 방향으로 갔다.

내가 눈을 부릅뜨고 바로 되받아 이야기 했더니 그는 움찔하는 표정이었다. 그러다 갑자기 “**너 어디서 왔냐 ?**” 라고 물었다. “너와 나의 대화에서 갑자기 왜 나의 출신을 묻냐 ? 너 **인종 차별주의자**냐 ?” 다소 격앙된 말에 그의 하얀 얼굴이 벌겋게 되었다. 다 인종 사회인 프랑스에서 인종 차별은 아주 큰 범죄였다. 그는 손을 내저으며 아니라고 구경 잘 하라고 이야기 하고는 황급히 사라졌다. 아마 그때부터 내가 신발 두 짝을 벗고 누워 잠을 한숨 자더라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.

10년 전 프랑스 문화부장관이 미술관을 방문했다. 그는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. 곤란해진 것은 미술관이었다. 여행객에게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것은 무례하다는 주장이었다. 며칠 뒤 미술관은 “**지금부터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.**” 고 발표했다. “**플뢰르 펠르랭 장관에게 감사를 표한다**”

24